

Prayer Walking to Jeju Island

August 7 to 11, 2007, three CA Korean Women (Fanny Kim, Ann Gill, Myung Hee Bae) visited Jeju Island to prayer walk.

Jeju Island population is approximately 525,000 and 92% of them are non believers. It's the only mission field that's left in Korea and 3 teams of IMB missionary families reside there. It is a tourist city that has 3.6 million visitors every year. The missionary team is spread in Jeju Island to do mission work in the island. Their target groups are Jeju born Hae-Nyeu(Women divers who go into the water and pick fish for business) and blue-collar laborers. Many are illiterate and believe in their ancestor god.

We, CA Korean Women's Team, were greeted by Sue Park, one of the Jeju Island missionary team. For 3 days, we were able to visit almost every city of island with our IMB team. As a result, 4 people accepted Jesus Christ as their personal savior and 13 were interested in knowing God. One amazing story is that a Buddhist Temple owner accepted Jesus Christ as her savior. She'll sell the temple and start a new life. Isn't God awesome!

Summer is not a good season to visit Jeju due to weather. It's actually an off-season for the Jeju Islanders. But not only were we blessed by the visit, but the Jeju team was encouraged by our visit and ask for continued visit and prayer.

제주도 땅밋기 기도

2007년 8월 7일과 11일에 캘리포니아 한인 여성선교회 팀 3명(김화영, 길영애, 배명희 사모)이 한국 제주도 땅밋기 기도에 참여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약 525,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92%는 무속신앙이거나 아무 종교도 갖고 있지 않고 있어 저희 국제 선교부에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선교지로 선정되어 3팀의 선교사가정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도시로서 매년 약 36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저희 선교팀은 제주도 전역에 각각 흩어져서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대상자들은 해녀들과 노동자들이고 이들의 많은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하고 무속 종교들을 믿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캘리포니아 한인 여성선교회 팀은 제주도에서 수고하시는 박홍자 선교사님으로부터 마중을 받고 제주도에서의 3일간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일같이 제주도 팀들과 함께 제주도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여 4명의 결신자들과 13명의 관심자들을 만나게 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희 팀의 전도를 받은 광명보살이라는 분이 저희가 돌아온이후 예수를 믿기로 결정, 보살집을 정리하고 새로운곳에서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시기로 하였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요!

여름은 제주도 사역하기에는 날씨로서는 적당하지 않고 사실은 제주도 주민들이 쉬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선교사님들께서도 저희의 방문을 통해 힘을 얻고 지속된 기도와 방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www.teamjejublue.com